

## V. 독일

□ FY2009: 2009년 1월 ~ 2009년 12월

□ 출처:

『Bundeshaushalt 2009, Finanzplan des Bundes 2008 bis 2012』

(2008년 8월),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2008년 8월),

(<http://ec.europa.eu/>)/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년 10월),

(<http://www.imf.org/>)/ 『OECD Economic Outlook』 (2008년 12월),

(<http://www.oecd.org/>)/ Kiel ([www.ifw-kiel.de](http://www.ifw-kiel.de/))/ IFO ([www.ifo.de](http://www.if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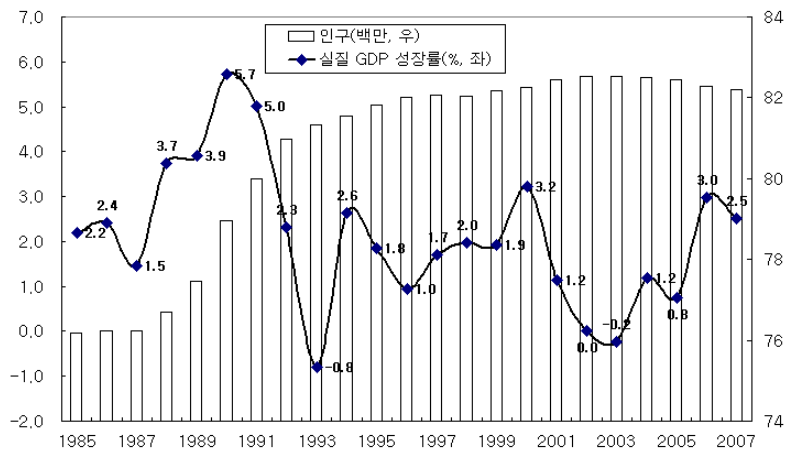
□ 환율: 1유로 = 약1,600.77원 (2008년 평균)

□ 경제규모 (IMF기준) : 2007년 경상GDP 3조 3,209억 달러 (우리나라 3.4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비율 (명목) : 2007년 기준 86.2% (우리나라 90.4%)

□ 총 인구 : 82,217,800명 (2007년 12월 기준)

□ 지난 10년간의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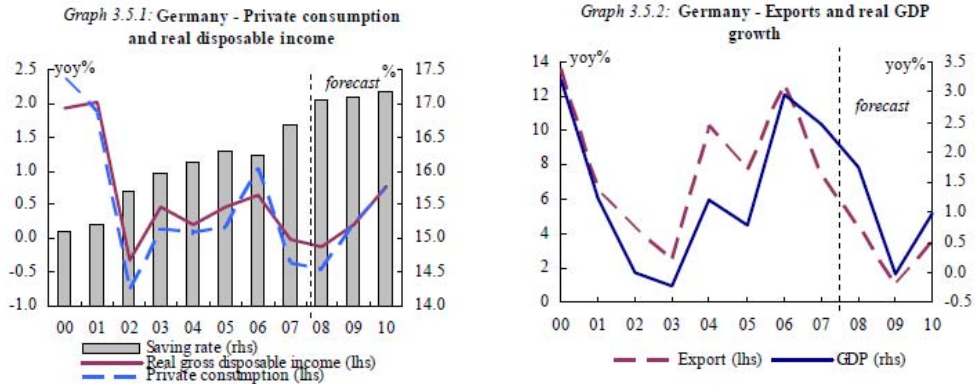
- ◇ 세계경제의 금융 불안 확산으로 인해 2009년도 독일 경제는 수출 둔화, GDP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의 증가를 겪으며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경기 침체의 대응 전략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발표로 재정지출의 증대가 불가피해짐
  - 가계 및 기업의 부담 완화 목적으로 감세를 추진함에 따라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추가적인 신규 차입금 발생으로 2009년도 총 차입 규모는 투자지출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 ◇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제시함
  -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 5000억 유로 구제금융 안
    - 금융시장안정화펀드 설립을 통한 자금 확보 계획
    - 은행 간 거래의 신용보증, 자산의 국유화, 긴급 유동성 장애 극복 등에 쓰일 예정
  - 1차 경기 부양책 발표 : 310억 유로 (2009~2010년도 적용)
    - 기업투자 활성화
    - 가계소비 촉진 대책
  - 2차 경기 부양책 발표 : 500억 유로 (2009~2010년도 적용)
    - 소득세 인하, 누진세 범위 변경
    - 기업체 인력 관리 강화
    - 건강보험료 인하
    - 자녀 지원금 지급
    - 공공시설 투자 자금 지급
    - R&D 투자 장려
    - 친환경 차량 지원 정책
    - 광대역 확대 보급 등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2009년도 독일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과 투자에 큰 타격을 받음
  - 수출은 2008년 4.5%의 성장을 보였으나 2009년도에는 1%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원활할 것으로 보이나 주요 수출국과의 무역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큼
  -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설비 및 기기에 대한 투자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09년도 순고정자산은 1.7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09년도 독일 GDP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의 증가, 투자 부진에 따른 설비 가동률의 저하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순환적 경기침체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
  
-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간소비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임금 상승과 고용 창출로 인해 5년간 침체에 빠진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인플레이션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여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2009~2010년도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및 투자 감소로 인해 2009년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 (2003년도 -0.2%의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이후 처음)
    - 2010년부터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실질GDP성장률은 1%에 육박, 인플레이션은 2%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그림 V-1] 민간소비 및 가처분 소득 [그림 V-2] 수출 및 실질 GDP 성장률



자료: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2008년 8월

<표 V-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EU 집행위원회		OECD		IMF		독일중앙은행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GDP 성장률	1.3	-2.3	1.4	-0.8	1.8	0	1.6	-0.8
CPI	2.8	0.8	2.9	1.1	2.9	1.4	2.8	0.8
실업률	7.1	7.7	7.4	8.1	7.4	8.0	7.8	8.1
수출	3.9	-6.1	4.2	0.7	N/A	N/A	4.4	-0.5
수입	5.0	-2.4	5.4	2.8	N/A	N/A	4.7	0.4

주: 1. CPI: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 수출/수입: 제화 및 용역에 해당

자료: EU 집행위원회: Interim Forecast, 2009년 1월

OECD, OECD Economic Outlook 84, 2008년 12월

IMF, Economic Outlook, 2008년 10월

독일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2008년 12월

## 나. 재정전망 (2009년 1월 수정 예산 반영)

### 1) 개관

#### □ 경제위기에 따른 지출 규모의 변화

- 2012년까지의 재정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지출은 증가 양상을 보임
- 2008년 여름에 발표된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출은 GDP 대비 11.2%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1, 2차 경기 부양책 발표 후 지출은 향후 몇 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회보장부문의 지출은 전체 부문 지출 규모의 50% 이하를 차지함에 따라 이는 안정적인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
- 2009년도 이자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전체 예산의 약 14.4%를 차지)

### 2) 세입 · 세출 전망

#### □ (재정지출) 2009년 독일 정부의 재정지출은 2,975억 유로로 전년에 비해 증가

※ 2009년 예산으로 발표한 지출 총액은 다음과 같이 변화됨.

2,884억 유로(2008년 8월) → 2,900억 유로 (수정) → 2,975억 유로 (2009년 1월 추경예산 반영)

- 정부는 독일의 기후 보호의 연구와 이에 따른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간 6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 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지출항목들을 제외한 2009년 총 지출액은 2008년도 대비 증가

□ (재정수입) 2009년도 조세수입은 2,332억 유로

※ 추경예산 반영 후 다음과 같이 변화됨:

2,487억 유로 → 2,441억 유로 → 2,332억 유로 (2009월 1월)

○ 2008년 8월에 발표된 Financial Plan에 따르면 세입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10년) 2,554억 유로→('11년) 2,663억 유로→('12년) 2,760억 유로

○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하락

- 292억 유로 (2008년 8월) → 274억 유로 → 276억 유로 (2009월 1월)

○ 2008년 8월 예산안은 2011년까지 신규차입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2008년 11월과 2009년 1월의 독일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신규차입금은 다음과 같이 다시 증가함

- 105억 유로(2008년 8월 예산안) → 185억 유로 → 368억 유로(2009년 1월)

□ (신규투자) 2009년 신규투자는 287억 유로 (전년대비 증가)

※ 259억 유로 → 272억 유로 → 287억 유로 (2009년 1월)

○ 교육과 연구개발에 지원될 금액은 약 5억 6천만 유로로 추정됨

□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 비교표 (경제 위기 대응 전과 후)

○ 2008년 8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세입, 세출 전망은 다음과 같음

<표 V-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08~2012)

(단위: 10억 유로)

	2007	2008 (추정치)	2009 (예산안)	Financial Plan		
				2010	2011	2012
<b>I. 재정지출</b>	270.4	283.2	288.4	292.4	295.2	300.6
전년대비 증가율(%)	3.6	4.7	1.8	1.4	1.0	1.8
<b>II. 재정수입</b>	270.4	283.2	288.4	292.4	295.2	300.6
조세수입	230.0	238.0	248.7	255.4	266.3	276.0
세외수입	26.0	33.3	29.2	31.0	28.9	24.6
신규차입	14.3	11.9	10.5	6.0	-	-
<b>III. 투자지출</b>	26.2	24.7	25.9	25.9	25.5	25.3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8 bis 2012, 2008년 8월

- 1, 2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추경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연방정부의 2009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수정됨

<표 V-3> 2009년도 연방정부 추경예산안

(단위: 10억 유로)

	2009	추가 예산	2009년도 합계
<b>I. 재정지출</b>	290	7.5	297.5
전년대비 증가율(%)	2.4		5.1
<b>II. 재정수입</b>	290	7.5	297.5
조세 수입	244.1	-10.9	233.2
세외 수입	27.4	0.2	27.6
신규차입	18.5	18.3	36.8
<b>III. 투자지출</b>	27.2	1.5	28.7

자료: 독일 재무부, 2009년 1월

- 경기 부양책에 따른 지출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해 신규 차입금이 183억 유로 추가됨
- 총 차입금은 368억 유로로 투자지출 금액을 81억 유로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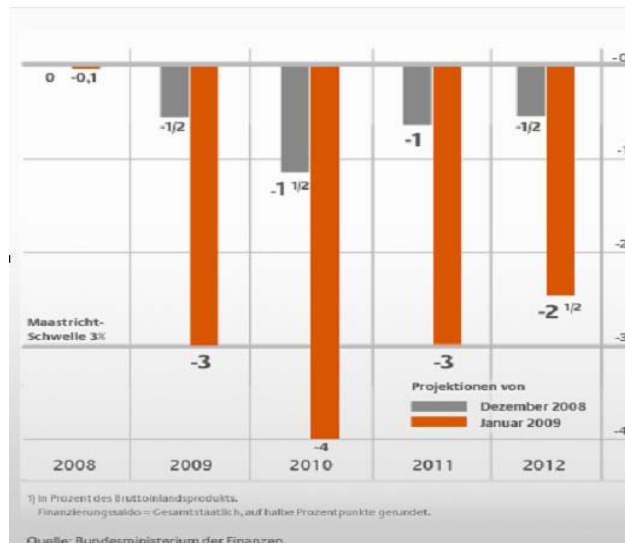
- 독일 기본법 115조 (Basic Law Article 115)는 독일정부 차입금은 투자지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경제 불균형 발생 시 예외사항이 적용된다고 명시됨
- 독일 정부는 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 지원을 위해 169억 유로의 감채기금 (Investitions- und Tilgungsfonds)을 계획중

### 3) 독일정부 재정수지

-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독일은 향후 몇 년간 재정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재무부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의 적자규모는 2009년도에 GDP의 3%, 2010년도는 4%가 될 것으로 보임
- 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0년도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그림 V-3] 독일 재정적자 규모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전망 비교)

(단위: %)



자료: 독일 재무부, 2009년 1월

<표 V-4>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7	2008	2009	2010
IFO (2008년 12월)	-0.2	0.1	-1.4	-2.9
KIEL (2008년 12월)	-0.2	0.1	-0.9	-3.2
IMF (2008년 10월)	-0.2	-0.3	-0.8	n.a
OECD (2008년 12월)	0.1	0.0	-0.9	-1.0
EU집행위원회 (2009년 1월)	-0.2	-0.1	-2.9	-4.2

주: 1. IFO: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 KIEL: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 2. 2009년도 예산기조

### 1) 발전 및 안정화에 중점

개발원조 및 연구개발 분야의 강화

- 개발원조에 8억 유로, 연구개발에 4억 5천만 유로가 각각 지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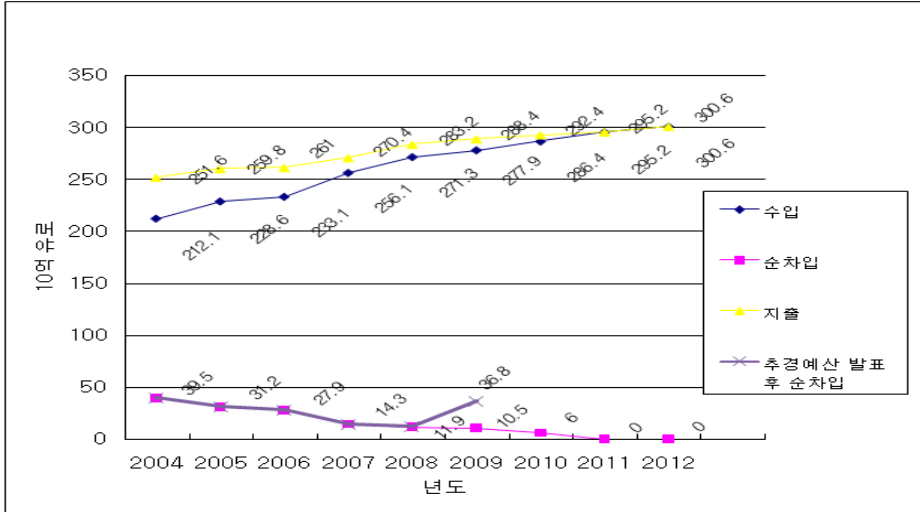
### 2) 재원 조달 방식

순차입금의 변화

- 2008년 8월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도까지 순차입금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2009~2010년도의 810억 유로 규모의 1,2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됨에 따라 차입금은 전년대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림 V-4] 재정수입, 순차입, 지출 전망

(단위: 10억 유로)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8 bis 2012, 2008년 8월과 2009년 1월의 수치 이용

### 3) 부채비율의 변화

[그림 V-4] 정부부채 규모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독일 재무부, 2009년 1월

<표 V-5> 정부부채 규모 (IMF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3
총부채	64.7	66.4	66	63.2	76.4	77	73.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년 10월

□ 부채비율의 증가 추이

- 안정과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EU 국가는 정부 부채비율을 GDP의 60% 이하 혹은 그와 비슷한 비율로 지킬 것을 원칙으로 함
- 2007년도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부채비율이 65% 이하였으나 신규차입금과 은행 구제 대책에 따른 지출로 인해 향후 몇년간 7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4)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대응

□ 금융시장 안정 대책 (2008년 10월)

→ 5000억 유로

□ 1차 경기 부양책 (2008년 11월)

→ 310억 유로

□ 2차 경기 부양책 (2009년 1월)

→ 500억 유로

### 3. 재정수입 · 지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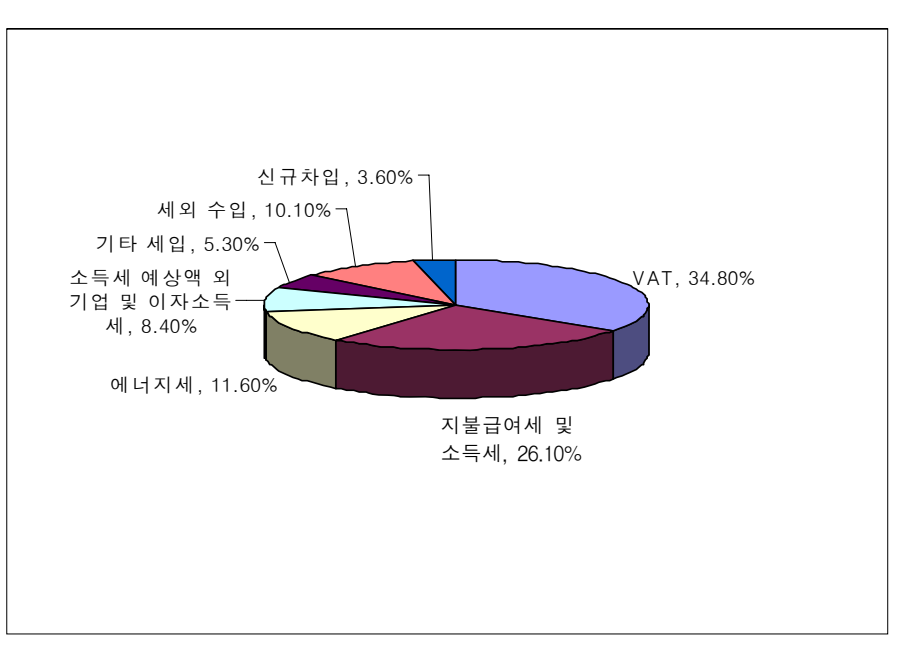
#### 1) 재정수입 내역

□ 2009년도 조세수입은 2,332억 유로

- 법인세 인하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 세금 완화 조치로 인해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중 차입금 규모는 368억 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경제위기 대응 정책으로 인한 지출 증가에 따른 것임

[그림 V-9] 2009년도 독일정부 재정수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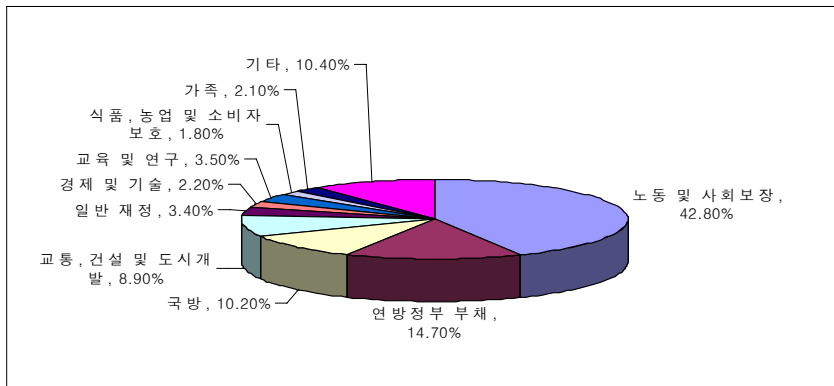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8 bis 2012, 2008년 8월

## 2) 재정지출 내역

□ 2009년 1월 발표된 독일 정부의 재정지출은 2,975억 유로로 전년에 비해 증가

[그림 V-9] 2009년도 독일정부 재정지출 구조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8 bis 2012, 2008년 8월

### ① 교육 및 연구개발 부문

- 연방 정부가 ‘60억 유로 지원 프로그램’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총 4억 5천만 유로가 지급될 예정. 이 중 교육연구부에 연간 3억 유로씩 배정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
  - 노령화 인구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연구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기후변화 및 에너지 연구
  - 국제적인 연구 협력의 강화
- 정부예산 중 남은 1억 유로는 경제기술부에 지원될 예정이며 5천만 유로는 ‘60억 유로 지원 프로그램’의 참가 부서들에게 배분 (지급되는 총 금액은 GDP의 2.8%)

에 해당하는 수준)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을 위해 교육연구부에 1억 8,500만 유로를 추가로 지급
-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 및 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도에 약 37억 유로를 대규모 연구기관에 지원

#### ② 개발원조 부문

- 2009년도에 개발원조에 지급되는 비용은 8억 유로 (2012년까지 4년간 총 32억 유로 지급)
- 경제협력부에 지급되는 ODA 예산은 5억 1,300만 유로

#### ③ 국방 부문

- 2009년도 국방예산은 311억 유로로 이는 2008년 대비 16억 유로 증가한 수준 (작년 대비 5% 증가)

#### ④ 사회보장 및 노동 부문

- 연방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2009년도 이에 대한 예산액은 약 791억 유로로 총 지출의 27.4% 수준
  - 이 중 독일의 국민건강보험인 GKV(Gesetzliche Krankenkasse)에 40억 유로가 배정됨. 이 항목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15억 유로이며 2016년도에 14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실업급여 지원금은 200억 유로로 전년 목표 대비 8억 8천만 유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⑤ 가족지원 부문

- 자녀지원 정책으로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월 164 유로, 셋째 아이는 170유로, 넷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 195 유로를 지급함

- 가계를 위한 각종 서비스에 대해 연간 2만 유로까지(월 1,665 유로까지) 서비스 지급 비용의 20%를 공제받음
- HartzIV<sup>1)</sup> (SGBII, SGBXII) 중 10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는 학기 시작과 함께 100 유로를 지급받으며 지원 비용은 필기구 등 학습 관련 용품 소비에 국한됨

<표 V-6> 독일 연방정부 기능별 지출 (2007~2012)

(단위: 백만 유로)

		Financial plan					
		2007	추정치 2008	예산안 2009	2010	2011	2012
1	사회보장						
1.1	연금보험 급여	78,128	78,202	79,057	80,645	82,374	82,198
1.2	노동시장	42,414	42,630	40,996	39,536	38,760	38,901
1.3	가족지원	4,305	5,158	5,043	5,035	5,035	5,035
1.4	주거 보조	876	1,000	591	591	591	591
1.5	주택 장려금	453	442	446	608	525	486
1.6	전쟁 희생자 지원	5,545	2,368	2,153	1,976	1,818	1,668
1.7	나치 박해 희생자 배상 등	556	617	624	576	542	523
1.8	농촌지원	3,739	3,734	3,686	3,756	3,797	3,842
1.9	기타	8,465	6,364	8,473	10,012	11,566	13,133
2	국방						
2.1	국방	28,783	29,450	31,093	31,084	30,921	31,154
2.2	기타	59	82	67	67	67	67
3	식품, 농업 및 소비자 보호						
3.1	농업구조 개선 및 연안보호	611	615	700	700	700	700
3.2	기타 농업, 임업, 소비자 보호	409	536	463	468	457	454

1) HartzIV의 내용:

Hartz는 노동시장의 혁신을 위해 2002년도에 도입된 개념으로 총 4단계로 형성됨. 2005년 1월에 처음 시행된 HartzIV는 기존의 장기 실업자를 위한 실업보조금 (Arbeitslosenhilfe)과 사회보조금 (Sozialhilfe)의 통합을 가져왔음. 2008년 7월 기준으로 독신가정에 월 351 유로와 기본 주택이 제공됨. 배우자 혹은 자녀를 둔 경우 추가 수혜 가능.

실업보조금(현재는 ArbeitslosengeldII로 불림)은 수혜자의 저축예금, 종신보험,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결정됨. 무직자가 실업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국가에서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줌.

4	경제발전						
4.1	에너지	2,173	2,387	2,721	2,511	2,367	2,296
4.2	기타 무역증진	495	592	596	630	642	646
4.3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증진	654	694	745	755	759	761
4.4	지역경제 발전	1,022	711	638	638	634	633
4.5	정부보증 및 기타 경제발전	1,214	1,560	1,370	1,319	1,278	1,272
5	교통						
5.1	연방철도	9,731	9,303	9,951	9,897	9,985	9,979
5.2	연방국도	5,787	5,858	6,115	5,921	5,780	5,738
5.3	연방수로	1,638	1,748	1,927	1,914	1,902	1,892
5.4	지방정부 교통환경개선	1,643	1,672	1,672	1,672	1,672	1,672
5.5	기타	1,391	1,531	2,068	2,049	2,048	2,105
6	건설						
6.1	주택 및 도시 개발	1,742	1,768	1,713	1,801	1,901	1,927
7	연구, 교육 및 과학, 문화사업						
7.1	과학, 연구개발 (대학 外)	7,185	6,940	7,569	7,712	7,637	7,580
7.2	대학	1,280	1,598	1,728	1,871	1,833	1,847
7.3	학습지원, 과학인재 육성	1,510	1,743	1,962	2,030	2,071	2,088
7.4	직업훈련 및 기타	1,372	1,825	1,356	1,369	1,351	1,339
7.5	문화사업	1,874	1,602	1,644	1,636	1,603	1,588
8	환경보호	474	573	740	745	845	874
9	체육	110	126	129	129	129	130
10	치안 및 이민	3,493	3,940	4,223	4,151	4,056	3,912
11	경제협력 및 개발	4,373	4,985	5,675	5,767	5,772	5,772
12	일반재정						
12.1	이자지출	38,772	41,887	41,550	43,457	44,760	47,138
12.2	연금급여	2,810	2,749	2,794	2,751	2,706	2,666
12.3	특별자산	-	450	600	600	580	580
12.4	신탁기관 운영	271	280	288	255	217	181
12.5	기타	8,090	15,438	15,306	16,094	19,860	17,587
12.6	글로벌 지출 및 1.1~11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	-	41	74	327	1,342	355
	총 재정지출	273,447	283,199	288,398	292,401	289,199	300,600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08 bis 2012, 2008년 8월

#### 4. 경제위기 대응정책

##### 가. (2008.10.13)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 5000억 유로 구제금융안 발표 (독일 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
  - 금융시장안정법 (Finanzmarktstabilisierungsgesetz: FMStG)에 따라 금융시장안정화펀드(Finanzmarktstabilisierungsfonds)를 설립하여 자금 확보
  - 은행 간 거래의 신용보증을 위해 4,000억 유로 지원 (2009년 12월까지)
  - 은행의 대출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일부 자산 국유화 가능
    - 정부예산 중 800억 유로를 이 목적으로 지원
  - 긴급 유동성 장애 극복을 위해 200억 유로 공급
  - 은행의 회계규정을 완화해 올해 3/4분기부터 시행

##### 나. (2008.11.5) 310억 유로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 발표 (2009~2010, 2년간 적용)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 기업은 향후 2년간 자산 취득 후 취득가액의 25% 가량 감가상각 가능
    - 중소기업에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감가상각 혜택 수여
  - 기업의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 소유 은행이자 독일 최대의 특수은행인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는 2009년 말까지 추가적인 지원금 150억 유로를 대출할 예정
  - 환경 보호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공사에 30억 유로 투자
  - 지역의 인프라 투자 증대 목적으로 30억 유로 지원
  - 향후 2년간 교통 관련 시설 투자를 위해 10억 유로 지원

- 2009년도에 시행될 지역 개발 프로그램인 ‘지역 경제 구조의 개선 작업’을 위해 2억 유로 지원

□ 가계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 1년간 신차 구매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 (Euro 5<sup>2</sup>)와 Euro 6<sup>3</sup>)에 해당되는 저탄소 배출 신차는 2년간 세금 면제)
- 직장의 근로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강화 프로그램 시행
- 실업급여 수혜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1년간 시행)

**다. (2009.1.13) 500억 유로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 발표 (2009~2010, 2년간 적용)**

-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세를 15%에서 14%로 인하, 누진세 범위 변경
-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체 인력 관리 장려 및 근로시간이 단축된 자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지원금 지급
- 2009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14.9%로 인하
- 자녀 1명당 100 유로 지급 (1회 적용)
- 신용이 좋은 대기업은 KfW로부터 대출 가능
- 유치원, 학교, 도로, 병원 등의 공공시설에 140억 유로 자금 지원
  - 고속도로: 40억 투자
  - 지역 개발 프로그램: 100억 유로
- 추가적으로 33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합계액인 170억 유로의 절반에 해당하는

2) Euro 5 기준:

디젤 차량 배출량 : 일산화탄소 500mg/km, 미세먼지 5mg/km (Euro 4 기준보다 80% 감소), 산화질소 180mg/km (Euro 4 기준보다 20% 감소), 탄화수소와 산화질소의 혼합양 230mg/km  
 가솔린, 천연가스, LPG차량 : 일산화탄소 1000mg/km, 메탄이 혼합되지 않은 탄화수소 68mg/km, 총 탄화수소량 100mg/km, 산화질소 60mg/km (Euro 4 기준보다 25% 감소), 미세먼지 5mg/km

3) Euro 6 기준:

모든 디젤 차량은 산화질소량을 줄일 것 (Euro 5 기준치의 절반으로 줄임)

금액을 2009년 말까지 소요 예정

- R&D 투자 목적으로 2009~2010년 2년간 기업체에 총 4억 5천만 유로 지급
- 친환경 차량의 개발을 위해 5억 유로 투자
- 2010년까지 광대역(broadband) 확대 보급
  - 2014년까지 독일 가정의 75%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 계획 (2018년까지 전 가정에 확대 보급)
-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출시 헷수가 9년 이상인 차량을 소유한 차주 중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자에게 2,500 유로의 보너스 지급(2009년 말까지)

□ 1, 2차 경기 부양책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총 810억 유로이며 이는 독일 GDP의 1.5%에 해당하는 규모

- 최근 발표된 부양책에 따른 국가채무를 막고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2009년 1월 추경예산이 발표됐으며 추가적인 자금(169억 유로) 마련을 위해 펀드 조성 계획 (Investitions- und Tilgungsfonds: 감채기금)
- 169억 유로에 해당하는 펀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
  - 지역의 미래 투자 개발에 100억 유로
  - 추가적인 연방 투자비로 40억 유로
  - 대형차를 위한 환경부담금 등에 15억 유로
  - 중산층 부양 목적의 혁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9억 유로
  - 무선통신 기술을 위한 R&D 지원에 5억 투자
- 펀드 상환을 위해 2010년부터 독일중앙은행 특수 예치금의 일부 사용될 예정
  - 추가 수익금 조성 위해 상황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 검토중